1993년 조선예술 음악관련 기사 살펴보기

1993년도 조선예술에 수록된 음악관련 글을 살펴보면, 논설은 7종, 음악인을 소개하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에 소개된 음악인을 다룬 글은 8종, 노래해설과 평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가요평은 15종, 음악관련 무대예술분야의 평론은 6종, 연단은 8종, 강좌 5종, 로작해설 6종, 화선예술을 소개한 글 1종, 그리고 영화 및 방송음악당 창립 35주년 기념 좌담회를 채록한 글이 하나가 있다.

1993년 조선예술에 수록된 음악관련 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의 저서인 『음악예술론』의 출판관련 글이 연재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의 로작 『음악예술론』은 1991년 7월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과 함께 로작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1월호의 “론설 주체적음악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불멸의 대강”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음악예술론》은 주체시대 음악예술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다.”라고 『음악예술론』에 대한 극찬과 함께 『음악예술론』에 수록된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또한 『음악예술론』은 이론실천적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을 발전시킨 강령적 문헌이고, 주체적음악예술발전을 부추겨 음악예술인들의 창조적열정을 북돋아주는 기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음악예술인들이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음악예술을 창조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가장 올바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1월호에서 『음악예술론』의 의의를 주장한 후에 7월부터 94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주체음악(7호)”, “작곡(8-9호)”, “연주(10-12호)”, “음악후비육성(94년 1호)”에 대해 로작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였다.

또한 1993년도에는 전자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호에서는 “아름답고 고상한 선율본위의 우리 식 전자음악”과 6호의 “(론설) 연주형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 식 전자음악”, 8호에서의 “당과 수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드는 보천보전자악단과 그 음악에 대하여”와 “우리 식 기악창작의 빛나는 모범”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가요 《그이께서 건강하십니까》,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 《우등불》 등을 해설하거나 “(론설)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충성의 노래 - 최고사령관동지를 칭송하는 가요들을 놓고”에서도 보천보전자악단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보천보전자악단은 왕재산경음악단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전자악단으로 1983년에 김정일에 의해 창설된 악단이다. 북한에서 전자음악이 새로운 음악예술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편곡에 있다. 즉, 북한 전자음악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고상한 선율로 편곡되었고, 이러한 선율이 조선장단과 어우러지면서 민족적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서양식의 전자악기에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을 더하여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배합관현악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는 독특한 조선식 복합음색이 나오도록 편곡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전자음악을 “우리 식으로” 편곡한다는 것은 “명곡과 민요를 위주로 편곡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곡을 배합하되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편곡하고 형상하는 것이 진짜 잘 하는것이고 우리 식으로 하는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가요 중에는 노래의 주제와 대상이 김정일이란 점이 주목된다. 우선 《그이께서 건강하십니까》는 김정일의 장생불로를 기원하는 노래이며, 단순히 세태적인 감정이 아닌 온 인류가 염원하는 혁명적 감정의 분출이라고 하였는데,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애로운 사랑의 한푼에 안고 / 행복에로 이끄시는 김정일동지
우리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 / 영원히 맡기고 따르웁니다.
수령님의 혁명위업 이어 가시며 / 온 세상에 새봄을 꽃 피우시네
산이라면 산 넘고 바다를 건너 / 충성의 대를 이어 모시렵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동지 / 인민들은 건강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1993년 2월 사로청 제8차대회에서 불렀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는 단순한 1부분형식에 선율의 반복, 변화없이 반복되는 리듬꼴 등으로 통속성과 대중성이 담보된 국보적인 명곡으로 칭송하고 있다.

1.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장군
2. 미래도 희망도 다 맡아주는 / 민족의 운명인 김정일장군
3.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해도 /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장군
(후렴)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상으로 1993년 조선예술 음악편을 정리해 보면, 김정일의 로작을 해설하고 김정일이 만든 보천보전자악단의 활동상황과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김정일과 당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수록한 것, 그리고 4·15기념 송가 <김일성대원수>를 제외하고 모두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채워진 것으로 보아 권력의 축이 김정일로 이미 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배 인교